

## 5.2. 비범 품은 개념들. 그 외 문학 용어

### STEP 1

다음 작품에서 어떠한 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

어디서 우 울음 소리가 드들려  
 처 건릴 수가 없어 나 난 말야  
 토 오르고 싶어 울음 소리가  
 꼬 끊어질 듯 꼬 끊이지 않고  
 드들려와

야 양팔을 벌리고 과 과녁에 서 있는  
 그런 부 불인의 생각새들  
 우우 그런 처욕적인  
 과 광경을 보면 소 소름 끼쳐  
 다 달아나고 싶어

도 동화야 도 동화의 세계야  
 저놈의 소리 저 우 울음 소리  
 세 세기말의 배후에서 무 무수한 학살극  
 바 발이 잘 때이지 않아 그런데  
 자 자백하러구? 내가 무얼 아했기에  
 소 소름 끼쳐 티 텅 빈 도시  
 아니 우 옷는 소리가 끝내는  
 끝내는 미 미쳐 버릴지 모른다  
 우우 보우트 파플이어 텅 빈 세계여  
 나는 부 부 부인할 것이다.

-이승하, 〈외가 몽크와 함께〉



위시는 '말년들이' 화자를 등장시켜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불인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위 작품을 읽는 동안 우리는 그 형식과 표현의 생경함에 여러동경해진다.

### 그 외 문학 용어

모티프	낯설게 하기	완형적 이미지	주관적 변용	문장 부호의 기능
-----	--------	---------	--------	-----------

모티프란 장편의 원천이 되는 특정한 요소 사건, 낱말, 문구, 기법, 공식을 말하는데 시대와 지역을 넘어 서 문학작품에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원형적인 요소이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尖塔)이 지랄해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중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회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자기 희생을 통해 인물을 구현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홀리겠습니다.  
 ... 자기 희생을 통해 인물을 구현

-윤동주, 〈십자가〉

위시의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예수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부활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시작 화자는 교회당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 자신도 예수처럼 희생을 통해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희생양 모티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 **잠깐: 소재와 모티프는 무엇이 다를까?**

모티프란 창작의 원천이 되는 특정한 요소로 인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잘 기억되며 쉽게 깨어지지 않는 일종의 공식 같은 개념이다. 모티프 자체에 내용과 상황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소재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및 자연 현상, 인물의 행동을 가리킨다. 작품 안에서의 소재는 작가가 선택하여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변형된 재료라고 볼 수 있다.

모티프는 작가에게 선택되어 작품 속에 사용되더라도 그 의미가 변형되지 않는 반면에 소재는 작품 속 원천에 맞게 변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독립적인 생명력을 지닌 모티프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희생양 모티프**

원시 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가족이나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이 예술 작품 속에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 이를 '희생양 모티프'라고 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도 '희생양 모티프'가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신 모티프**

알론이 추한 여자가 아름다움 공주가 된다든지, 개구리가 나중에 왕자가 된다는지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이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백씨전'에도 변신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



낯설게 하기란 일상화되어 참신하지 않은 내용이나 정서를 처음 보는 듯이 낯설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상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습관화된 틀 속에서 굳어진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가)

어둠 속에 굳게 **중화** 작용하는 ... *자아나 소멸의 가는 현상을 통해 작업이라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러려 용이를 시험하여 형성화*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중

(나)

노주인의 **장벽**(障壁)에

무시로 **인동**(인동(寒冬)삼긴 물이 나린다.

... '인동'을 마녀나 '하도' 동맹하게 표현하게  
않고 '인동'이 '인동'이 나린다(내린다)'라고 써버린  
게 문란

도로 피어 붉고,

-정지용, 〈인동차〉 중

위 시들에서는 과학 용어인 '중화 작용'이라는 지 생리학 용어인 '장벽'을 사용해 독자들이 긴장하거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정지용의 〈인동차〉에서 인동차를 주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낯설게 하기' 방법이 사용되었다.



### 그 외 문화 용어



원형적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로 모든 문화권에 서 사용되는 공통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다.

**雨歌**長堤草色多  
수원 장계 초색 다

비 개인 언덕에는 풀빛 길인데.

**送君南浦**動悲歌  
송군 남포 동 비가

그대를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려 퍼지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수하시진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마를 것인가.

**別淚**年年添綠波  
별루년년첨록파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정지상 <송인>

위 시는 우리나라 한시 중 최초의 이별시로 꼽히는 고려 시대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다. 위 시에는 우(雨), 포(浦), 강(江), 수(水), 루(淚), 파(波)와 같은 '물'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다. '물'의 원형적 이미지에는 이별과 죽음이 있다. 이 타고난 천재 시인은 본능적으로 '물을 끌어들이 이 별의 슬픔을 확대해왔던 것이다.'

### ▶ 잠깐: 문학 작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의 이미지

우리나라 영화든 외국 영화든 간에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랑하는 두 남녀가 헤어지는 대목에선 유독 비 내리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를 감독들이 차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대와 인종을 뛰어 넘어 모든 인간의 DNA에 각인된 원초적 이미지를 원형적 이미지라고 한다.

'물'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모든 생명에 물에서 나왔다는지,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는지 하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반면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여 주거지가 파괴되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지 하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물	
+ 이미지	- 이미지
생명, 정화, 재생	이별, 죽음

감독들은 이러한 물의 원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관객들 역시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공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문학 뿐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 서도 이러한 원형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다.



주관적 변용이란 시적 화자가 일상적인 현실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정서나 생각을 기발하게 표현하려는 기법을 말한다.

(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헝리 베히 내어  
 춘풍(春風)나를 아레 서리서리 다했다가  
 어물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뉘구뉘 퍼리마.

-황진이의 시조

(나)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걸걸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채라  
 짐짓 호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최치원, <재가야산독서당>

(가)는 황진이(의 시조로 '범'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마치 구체적 사물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잘라 보 관했다)가 사랑하는 임이 오신 날 밤 '구뉘구뉘' 펼쳐 사랑의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최치원의 한시로 실제로는 화자가 속세가 싫어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말'이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처럼 변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시를 감상할 때 문장 부호의 기능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문장 부호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시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장 부호의 사용에 따른 효과도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

물에  
 그들이 차고, ... 반년쯤 이십하여 각 연  
 이 가지는 영산 이미지를 좀 더 별첨과 두어는 시인의 의도가 드러난다.  
 파포 물리는 ... 문장을 활용하여 비 오는 문장을 주석의 장엄한 토 나옴  
 소소리바람!  
 앞서거나 하여  
 꼬리 치달리어 새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山)새 걸음걸이.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밧은 듯  
 새삼 물는 밧날 .....  
 붉은 잎 잎  
 소란히 밝고 간다.  
 -정지용, <비>

... 이 연만 신통 허위를 한겨 앓음: 잠시 멍했 다가 다시 한 두 방울 떨어지는 비바람이 순간 간에 수만은 비바람을 이 내는 연연한 장엄한 문바람

이 시는 비 내리는 모습을 순차적 시간의 질서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1~2연은 비 내리기 직전 물에 그들이 드리워지고 어지럽게 바람이 부는 모습을, 3~4연은 대지에 떨어지기 시작한 물방울이 '인내 걸음걸이'처럼 경쾌하게 튀는 모습을, 5~6연은 빗물이 모여 여울지어 흘러키는 모습을, 7~8연은 다시 빗방울이 붉은 꽃잎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고 있다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반복과 은점은 영화에 있어 장면의 분할과 같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개념있는 문제풀이

A형 2009년도 영남모의평가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부모 직산기둥 이층 다다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맞으로  
 완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별별 떨면서  
 아버지 기량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줄 뺨기루로 작아  
 붉은 흙에 지워 없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층의 물로 화산(火山)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서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광광 **열어붙은** 잔등으로 폭한을 막으며  
 허약하게 **얼음으로** 언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Q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TIP** 외풍은 겨울의 차가움을 상징한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 외풍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 바란다. 따라서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과 대비가 되는 소재이다.
- ② 이층의 물로 화산에는 삼에 대한 유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TIP** 화산은 '여린 물살을 품에 안은' 이층의 물이 자식들을 위해 만신하다 물이거신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유희론과 관련된 인식이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상징화한 것이다.  
**TIP** '여린 물살은' 열어붙은 잔등이 추위와 맞서며 지키는 대상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비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열어붙은 잔등은 화산의 아버지가 물이거신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TIP** 열어붙은 잔등은 겨울의 강추위와 맞서며 여린 물살이 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존재이다. 이는 곧 항거론 속과 맞서며 여린 자식들을 지키고 키워 나가려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화산을 상징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수성과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TIP** 얼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B형 2010년도 수능

(가)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뱀꾸기가

울음 울어

페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절음**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뱀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화

한 봉우리에 숨은 실재의 뱀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반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반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뱀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삼진강 삼진강

그 흰세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불 허릿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꾸새 울음이

이승의 사리운 댐 마지막 밧줄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뱀꾸새〉



(나)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바사(薄紗) 고깔에 감추었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치리워리**.

빈 대(臺)에 황축(黃蠟) 불이 말없이 누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며,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이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리도 번너지는 별빛이리.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포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승무〉

—조지훈, 〈승무〉



개념있게 문제풀기

A형 2010년도 9월 모의평가

정답과 해설 P.246

오이밭에 \*별배채 통이 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별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밭에 뺨꾸기 소리

진술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눈두렁에 물닭의 소리

간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쭉 산소리 속에 나 홀로  
별로 오면 별이 들쭉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경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별에 오면 별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백석, <적막강산>

\* 별배채 : 들 배채, 이생 배채의 명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Q2 (가)의 '살음'과 (나)의 '사리위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살음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가)의 살음은 화자가 생각해 본 승무를 추는 여승, 즉 개인의 인생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살음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③ (가)의 살음은 화자가 생각한 소망은 이루어주거나 불행이나 재해를 막아 주는 초월적 능력이 어느 특정 자연물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 지성을 드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런데 (가)의 살음은 뱀꾸기의 울음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주술적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와 (나)의 살음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⑤ (가)와 (나)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이 세상은 새시에서 사들리는 번뇌로 가득찬 곳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에서 이 세상은 살음과 한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의 화자가 어떤 현실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① (가)와 (나)의 살음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② (가)의 살음은 승무를 추는 여승을 보며 화자의 내면에 생성된 정서이고, (가)의 살음은 화자가 배 좌석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는 '결쫂꽃의 새채를 통해 (나)는 밤을 지새우는 '귀포리'의 소리를 통해 살음을 향유하며 시상은 미루려하고 있다.

① (가)의 '살음'은 화자가 시적 대상인 승무를 추는 여승을 보고 느낀 감성이다. 승무를 추는 여승은 '백사꽃 고운 뺨'을 진이름라고 했을 여인이다. 그런데 무슨 월드 시간이 있어서 속세를 떠나승리가 되었으며 승려가 되어야도 기원왕지 않는 번뇌가 있기에 이처럼 같은 밤에 승무를 추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슬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울음은 밤을 지새우는 '귀포리'의 소리를 통해 다시 한기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귀포리'는 여승이 자신의 번뇌를 순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외부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로,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의 '살음'은 화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한으로, 뺨꾸기 울음에 합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살음'은 마지막 연에서 '결쫂꽃의 붉은 빛깔로 형성화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Q1 위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데 활용된 이미지와 방식은?

A

\_\_\_\_\_

Q2 위 시에서 화자의 심적 상황과 처지를 짐작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재는?

A

\_\_\_\_\_

Q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비를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허감을 드러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영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



B형 2009년도 4월 전국연합

정답과 해설 15247

(가) 차운 풀모라기  
이미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나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나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족(自족)의 잔(蠶)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멀어보내고,  
\*원(源)품을 내어맡긴 천인(天仟)의 깃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휘늘을 꿈꾸노라.

—간종길, 〈바다에서〉

\* 해로(海路): 바다 위의 배가 다니는 길

\* 감상(感傷): 외침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또는 그런 마음

\* 자족(自족): 자기기 지만 만족됨을 스스로 터뜨림

\* 원(源): 온, 전부, 모두



(나)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날아갈 때는  
사른 나뭇잎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글 두 글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랴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리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김기림, <연륜(年輪)>

Q4 (가)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은 무엇인가?

A

---

Q5 (가)시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유형은?

A

---

Q6 (나)에 사용된 표현기법은 무엇인가?

A

---

Q7 (나)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유형은?

A

---

Q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의기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림음이 나타나 있다.

→ ③ 화자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④ 화자를 둘러싼 외적 갈등의 원인이 나타나 있다.

→ ⑤ 노출되지 않은 화자가 독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 눈에 쑥쑥



- 1
- 2
- 3
- 4
- 5

Q9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②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③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를 달리하고 있다.

Q10 (가)와 (나)에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언어적 표현으로 공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세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기타 문학 개념

####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객관적 상민물 : 시적 화자의 정서를 어떤 사물을 통해 인식하는 방법  
 구체적 형상화 :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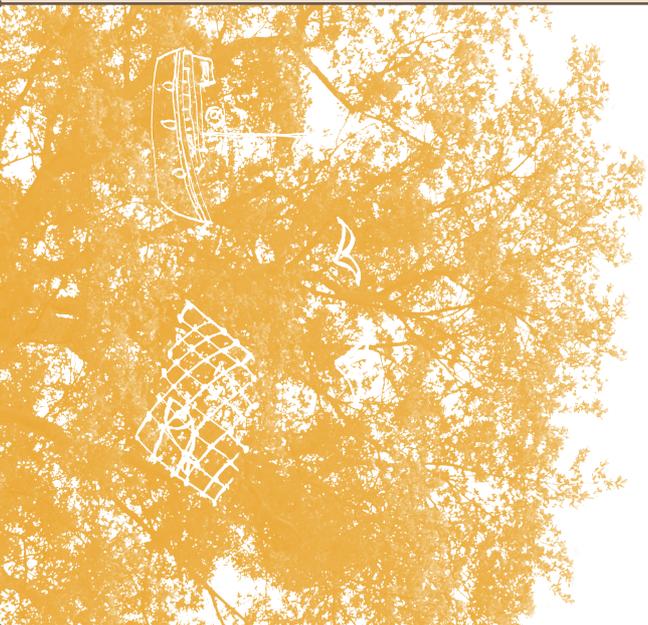
#### 그 외 문학 용어

낯설게 하기 : 참신하지 않은 내용이나 정서를 낯설게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모티프 : 창작의 동기가 되는 일종의 문학의 기법, 공식  
 원형적 이미지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용하는 공통된 상징  
 변용 : 시적 화자가 일상적인 현실을 기발하게 표현하는 방법  
 문장부호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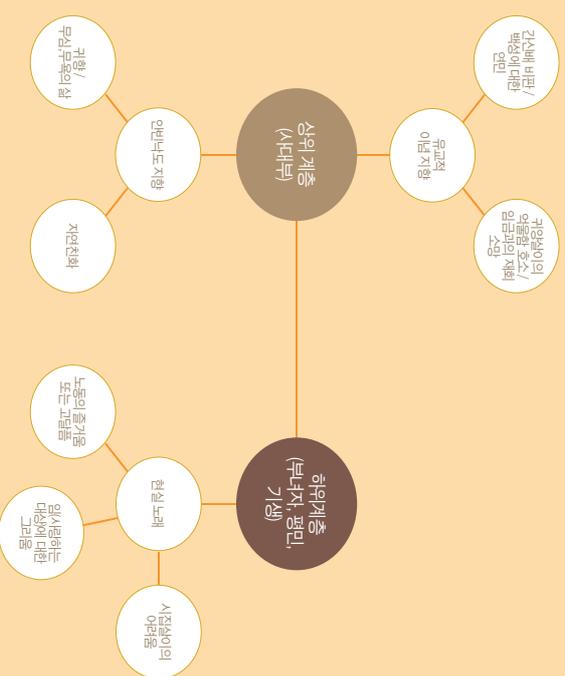
## II. 적용 학습

### 1. 고전 시가 해석하기

- 1.1. 고전 시가의 특징
- 1.2. 코드 시어로 작품 해석하기
- 1.3. 고어를 쉽게 읽는 법



고전 시가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고전 시가에 등장하는 낱말과 어휘 문 용어들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해하기만 해도 작품의 반 이상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 1.1. 개념 품은 비범 하나. 고전 시가의 특징

술리 너었거나 벗지라 업슬소나  
 불늬며 턱이며 혀이며 이어며  
 온 가지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물이라 보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겨즈락  
 울프락 포람하락 노해로 소귀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 흥가흥다.  
 \*회황(回皇)을 모들러니 이 격이야 괴로고야,  
 신선(神仙)이 옛더런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닐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할소나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근은 아차다.

-송준, <만양정가>

\*취흥(醉興) :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회황(回皇) : 북회서와 다른 이름,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호탕정회(浩蕩情懷) : 넓고 끝없는 웅대한 호모

한재 전해오는 상단수의 고전 시가는 조선시대 시대부들이 창작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전 시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연 조선시대 시대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삶의 지름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과거급제를 통해 정치 세계로 진출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부들의 시조나 가사에는 충과 효를 주제로 노래한 작품들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조선 시대부들이 자신들의 신념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움을 떠나 현실을 잊고 사고 싶을 때 찾는 공간은 자연이었다. 자연 속에서 여유와 한가모임을 즐기며 신성 수양을 하고 인격을 도야하고자 하였다. 그 속에서 우주의 아치와 조화의 원리를 체득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바로 조선 시대부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 친화의 본질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시대부들은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신념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했던 동시에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나를 합치시키고자 했던 양면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 특징 1

시대부, 자연을 노래한다.

나라히 귀망(破亡)하니 피와 기름 쓴 잇고,  
 잣 앓 보리 풀와 나모 쓴 기엣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歎)호니 고지 늬름을 썬리케고,  
 여회여수물 슬호니 새 모으물 볼래노라.  
 \*봉화(烽火) | 적 드를 니어시니,  
 지뵈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토더,  
 쉰 머리물 글구니 또 더르니,  
 다 반회될 이키디 못할 듯 호도다.

-두보, <춘망(春望)>

\* 여회여수물 : 여의였음을(이별하였음을)  
 \* 봉화(烽火) : 전쟁 상황만을 알려 주는 사이  
 \* 음서(音書) : 편지, 소식

## 01 자연과 인간의 대비

① 오백년(五百年)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갈채의 시조

해설 자연은 광대하고 변함없이 영만하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무너지고 결국엔 사라진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속성을 지형하거나 아니면 인간 세상의 모습과 형상을 지적하는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인간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다.

## 02 자연친화, 물아일체의 태도

② 내 빛이 빛이나 하나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두아라 이 다섯 바퀴 또 더하야 무엇하리,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해설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자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인들은 자연을 인간과 만물이 공존하며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연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수많은 고전 시가에 반영되어 있다.

## 특징 2

세상의 중심에서 '충'과 '효'를 외쳤다.

추성(秋城) 진호(鎭湖) 투박피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남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 모르나다.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리키는 울고 울고 가느니.

아버이 그럴 줄을 처연부터 알아마는  
남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켜지니  
진실로 남군을 잊으면 괴 불효(不孝)인가 여기 노라.

-완선도, <견회요(遣懷謠)>

### 01 유교사상의 핵심 '효(孝)'

- ① 반중(盤中) 조홍(朱紉)같이 꼬아도 보아는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어즉 후더마는  
품이 가 반키리 업슬식 글노 설워 후 노이다.  
-박인로의 시조

**해설** 고전 시가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인품이나 도덕적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 그 중에서 '효(孝)'가 선 인물에 추구했던 제일 기본 덕목인데 이러한 홍심(孝心)이 임금에게 옮기면 충이 되는 것이다.

### 02 관습적인 '충(忠)'의 진술 경향

- ① 강호(江湖)에 몸이 드나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로계변(濁羅溪邊)에 금련어(赤菡鵝) 안주로다  
이 몸이 완기해움도 역군은 이 샀다.  
-맹사성, <강호사사사(江湖四時歌)>

**해설** 서민부들에게 좋은 호화 같은 개념이자 삶의 지침이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중생을 즐기면서도 임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 유배 생활 중에도 '충'을 노래했다.

## 특징 3

다양한 표현 스테릴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식양리에 꺾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새우(細雨) 중에 포르도다.  
칼로 날아 낸가 못으로 그려 뉘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원스롭다.

-정규인, <상춘곡>

- \* 도화행화(桃花杏花) : 복숭아꽃과 살구꽃
- \* 녹양방초(綠楊芳草) :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 \* 새우(細雨) : 가림비
- \* 조화신공(造化神功) :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
- \* 원스롭다 : 아담스럽다

### 01 의도적 과장

- ① 굽어보니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열마나 그뻗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한겨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이현보, <어부단가(漁夫歌謠)>

**해설** 고전 시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중 하나가 '과장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활자가 밀려고자 하는 바를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고 싶어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다. 특히 화자의 정서의 강이나 넓이를 수치로 드러내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02 대구의 활용

- ① 남포락 나즈락하며 멀기와 갓감기와  
모지락 동구락하며 길기와 처르기와  
평생(平生)을 이리 흥였시니 무삼 근심 잊시리.  
-안민영의 시조

**해설** 고전 시가(雜體)는 말 그대로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였다. 따라서 음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운율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대구의 기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 1.2. 개념 품은 비범들. 코드 시어로 작품 해석하기

녕옹(吟翁)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제조(啼鳥)는  
 니별(離別)을 원하는 듯  
 정기를 쉰티니 오석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쳤부니 휘운(滄雲)이 다 것은 듯  
 명사(鳴沙)길 나그늘이 취신을 벗기 시러  
 바다를 것턱 두고 회명화로 드러가니  
 빅구(白鷗)야 누리마라 배 버딘 줄 었다 아는  
 금단골 도라드러 총석명 올라하니  
 빅우누 남은 기둥 다만 내회 쳐 잇고야;  
 공수의 상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드문가  
 구덕야 녹면(六面)은 그어슬 상뿔던고  
 고성(高城)올란 더만 두고 삼일포를 축작가니  
 단서(丹書)는 완연호되 수선은 어더가니  
 에 사를 머문 후(後)의 어더가 또 머물고  
 선유담 영당호 거귀나 가 잇는가  
 청간령 만경덕 몇고덕 안듯던고  
 니화(梨花)는 빌서 디고 점동새 슬피 울 제  
 낙산동반으로 의상덕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동만 내려하니  
 상운(祥雲)이 침피는 동 녹룡(六龍)이 마퇴는 동  
 바다회 제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천룡(天中)의 텃드니 호발(鶴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정철 <관동별곡>

고전 시가는 장르의 특성상 고에나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내용 파악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고전 작품을 대해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맥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번 장에서 고전 시가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법을 알려려고 한다. 사실 읽고 보면 고전 시가처럼 단순한 장르도 없다. 거의 주제가 도식화되어 있고 심지어 그 주제를 단적으로 암시하는 코드 시어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코드 시어들의 의미 파악을 통해 고전 시가에 쉽게 접근해 보자.

### 코드 1 사랑과 이별 1

삼생(三生)의 원업이오 월하(月下)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輕薄子)를 줌근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아름 다미는 듯 삼오이팔 겨오 지나 천연어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일흔이 태도(態度)로 백년 기약 하였더니 연광(年光)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 해야 봄바람 가을 물이 베풀리 부지나듯 **월빈화연(雪鬢花顏)** 어터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엘핀스나** 스스로 참피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리.

-허난설헌, <규원가>

#### 01 월빈화연(雪鬢花顏)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나 모습 (≡ 화용월태, 옥빈홍안)

01 서창(書窓)을 구지 덮고 삼거이 누어시니 화용월태(花容月態)난 안중(眼中)의 안암하고 문벽창(粉壁窓)은 침번(枕邊)에 의의(依依)하여.  
 -각저미상 <춘면곡(春眠曲)>

02 서창의 창문을 굳게 닫고 일없이 누워 있으니 꽃 같은 얼굴에 달 같은 모습은 눈앞에 아른거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양은 배갯머리에 떠오르니

#### 02 괴다 사랑하다 ↔ 괴다 (미워하다)

01 나 하나 점이 있고 널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터 노여 입다 평성에 원호요리 한터 네자 호았더니 늑거야 무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르고.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02 내는 젊어 있고 일도 나를 사랑하사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없으니 평성에 원하되 입과 함께 씹어괴자 하였더니 늑거야 무슨 일로 따로 떨어져 그리워하는가.

1 꽃머리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가 고르기 쉬운 얼굴이 되었구나  
 2 내 얼굴 바가 보아도 어떤 영이 나를 사랑하였는가?

코드 1 사랑과 이별 2

**【해설】** (옥창)의 심근(梅化(매화)) 몇 번이나 피어 있고, 겨울 밤  
 처고 찬 계 지워는 셋기 처고, 여름날 길고 길 계 구슬 비는 무  
 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들방에 들고 蠶絲(질술)이 床(상)에 울 계, 긴  
 한숨 디는 눈물 숙일업시 행만 만바. 아마도 모친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3. 창 앞에 잠이 놓은 매화 몇 번  
 이나 피었다가 있는가  
 4. 겨울 들 방에 비추고 구두라  
 미정성에서 울 때 긴 한숨 몇  
 아지는 눈물에 헛되이 생김만  
 많다.

03 옥창(玉窓) 여자가 거처하는 방 (능 사창)

03 **해** 귀포리 처 귀포리 아여밴다 처 귀포리  
 어인 귀포리 처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처 혼자 우리 네어  
 사창(紗窓)에 여원 잠을 슬뜨리도 석오는고야  
 두어라 계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無人)동방(洞房)에 내 못 알 리는  
 처 뿐인가 하노라.  
 -작가미상의 사설시조

**【해설】** 귀포리의 처 귀포리 불성한다 처 귀포리 아저하여 귀포리는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절절은  
 소리 마더마다 슬픈 소리로 처 혼자 계속 울어 사창 안의 일은 잠을 알들하게 깨우는 것인가, 두어라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獨守)일하고 있는 나의 뜻을 알아줄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04 질술(蠶絲) 구두라미를 말함. 주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낼 때 객관적 상관  
 물로서 사용

04 **해** 남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술(蠶絲)의 나시 되어  
 추야장(秋夜長) 기픈 밤에 남의 방에 드렸다가  
 날 잊고 긴피 든 잠을 색와 불가 하노라.  
 -박효권의 시조

**【해설】** 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구두라의 털이 되어 긴가를 같은 밤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나를 잊고 갔어  
 든 임의 잠을 깨워 불가 하노라.

코드 1 사랑과 이별 3

청동을 들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벗기 언어, 벽전화 한 곡조를  
 시름 조족 셋기 타니, 소상 아유의 멋소리 섯도는 듯, 화표 천년  
 의 별화이 우니는 듯 우수수의 타는 수단 벗소레 잇다마는

**【부용정(芙蓉影)】** 적막하니 누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 되어야  
 구의구의 쓴쳐서마.

출하리 잠을 들어 심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天上)의 건  
 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년  
 일도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鵲水)】**  
 가뱀관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쓰쳤는고.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5. 부용영이 비어 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6. 우리의 임은 가쳐 무슨 정애들이  
 가졌는지 오는지 가는지 소식  
 조차 물어보는가?

05 부용정(芙蓉影)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 주로 여성 화자의 외로운 심정  
 을 말할 때 사용

05 **해** 꽃 디고 새 님 나니 녹음(綠陰)이 잘렸는데, 나위(羅帷) 적막하고 슈머이 뵈  
 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그득 시름 한터 날  
 은 엇디 가뱀던고.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해설】** 꽃 지고 새 님 나니 녹음이 무거져 깔렸는데 비단 휘장은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은 비어 있다. 부용  
 을 둘러 놓고 병풍을 둘러 두니 가뱀이나 시름이 많으대 남은 아찌 간기.

06 약수(鵲水) 깃털머지 빠져 버릴 정도로 부력이 약하여 어떤 것도 건  
 낼 수 없는 신선 세계의 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감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임.

06 **해** 상사하든 우리 양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와병에 인사절하니 병이 들어 못 오  
 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 못 오는가.  
 -작가미상 <청춘과부가>

**【해설】** 서로 사랑하며 그리워하던 우리 양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사랑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병이 들어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01 공산(空山)** 텅 빈 산. 주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낼 때 쓰임.

㉠ 공산(空山)에 우는 짐동 너는 어이 우지는다 / 너도 달과 갖지 무슨 이별(離別) 하였는가 / 아무런 죄가 없을 대담(對答)이나 하더냐. -박효관의 시조

[해설] 아무도 없는 텅 빈 산에서 우는 짐동새야, 나는 아이하여 울부짖고 있느냐 / 너도 나와 같이 (연파) 무슨 이별하였느냐 / 아무 죄도 없는데 운을 (인어) 대담이나 하더냐.

**02 꽃** '꽃'을 만함. 주로 화자의 마음을 대신하거나 '꽃'을 보며 입을 환기할 때 쓰임.

㉠ 삼월(三月) 나며 개(開)한 아오 만춘(滿春) 들꽃고지여 / 나리 보를 즈슬 다녀 나갓다 / 아오 동동(動動)더리 -작자미상, <동동>

[해설] 삼월 지나며 만 아여 늦은 봄 진달래꽃잎의 아름다움 모습 비유이며 / 봄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네 / 아오 동동더리

**03 두견** 지귀 소객채를 만함. 화자의 '원이나' 마음의 아픔을 말하고자 할 때 쓰임.

㉠ 꿈에 나 님을 불러 잠 일흔가 누웠더니 / 새벽달 지세도독 각규청(子規聲)을 아이하리 /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나나 내나 다르리 -홍석관의 시조

[해설] 꿈에나 임을 불러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 새벽달 지세도독 지귀(두견새) 소리를 아이 하리 / 두어라 (임을 생각하는) 단장춘심은 내(나의)와 내(화자의) 다르지 않구나.

**04 열더** '정'을 통하다; 혼인하더의 의미

㉠ 선화공주(善花公主)나문 / 등그스지 열어 두고 / 맛동바일 / 마더 물안고 가다. -서동, <사동요(善童謠)>

[해설] 선화공주는님은 / 남 물배 정을 통하고 / 맛동 사방을 / 밤에 물배 안고 간다.

**05 월허(月下)**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는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하늘의 신을 만함.

㉠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허(月下)의 연분(緣分)으로 /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근치 만나와서 -허단철현, <규원가(閩怨歌)>

[해설]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로 부부의 인연으로 / 장안의 호탕하면서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06 가을밤** 화자의 외로움을 노래할 때 등장하는 배경

㉠ 남 그림 상사몽(相思夢)이 실승(蟻戀)의 낙시 되어 / 추야장(秋夜長) 깊은 밤에 남의 방(房)에 드렸다가 / 날 잊고 김피 든 잠을 석와 불가 하노라 -박효관의 시조

[해설]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상사병에 걸려 꿈같이 꾸무러미의 뒤)이 되어, / 긴고 가을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 나를 잊고 김피 든 (임의) 잠을 깨워 불가 하노라.

**07 외기러기** 외로운 신세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등장하는 시어

㉠ 피호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림 뜰은 만포만포 하고하고 / 어더셔 외기러기는 울고울고 가느니 -윤선도, <견회요(健懷謠)>

[해설]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리워하는 정은 멀고 멀고 / 어더셔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08 빈 비** 화자의 외로운 처지나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함.

㉠ 차공은 어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 강원(江天)의 혼자 서서 더는 희를 구버보니 / 남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정철, <추미인곡(續美人曲)>

[해설] 벗사들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끌어보니 / 임 깨진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09 홀로**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어

㉠ 爲人作嫁衣(위인작가의의) / 年年選舞宿(년년환독숙) -허단철현, <빈녀음(貧女吟)>

[해설] 시랑가는 누군가를 위해 관옷을 만들고 있지만 / 이내몸은 해마다 홀로 잔다오.

**10 그림자** 자신의 외로운 처지나 어두운 마음 상태를 말할 때 등장하는 시어

㉠ 결의 나라 인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 어엿은 그림자 달 조줄 씌어로다. -정철, <추미인곡(續美人曲)>

[해설] 꿈결에 일어나 있어 창문을 열고(밖을) 바라보니 / 기엿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다.

#### 4. 은슈의 3가지 모습

일어서기 위해  
쓰러지네

나는

비상하기 위해  
떨어지네.

-Boas

##### 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②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③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김광균, <추일서정> 중에서

##### ① 'A = B' 의 형태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여기서 A는 원관념, B는 보조 관념이다.

##### ② 'A의 B' 의 형태

B를 앞으로 빼면 직유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 폭포처럼 (쏟아지는) 일광(日光)

낙엽의 산더미 →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낙엽

역사의 능선 → 능선처럼 (가파른) 역사

③ 'A' = B'의 형태

원관념은 숨어 버리고 보조 관념만 드러내는 방식이다.

ex) 보조 관념인 '조그만 담배 연기'의 원관념은 '열차의 굴뚝 연기'이다.

**\* 선지의 속살**

❶ ㉔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9년도 3월 교육청)

❷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2009년도 10월 교육청)

❸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2009년도 대수능)

1. 비유법은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유법을 사용하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2.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즉 의인법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에 대해 친근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3.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에 직유법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 5. 영탄법

아무리 굶주릴지라도  
먹잇감과 다투지 않으리

세찬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의 힘으로 더 높이 솟구치리

독수리처럼  
불어오는 도전을 비상(飛上)의 수단으로 삼아  
창공을 지배하리

- Boas

예상 외로 실전에서 학생들이 영탄적 표현에 대해 헛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영탄법은 강조법에 속하는 표현이다. 즉 화자가 지니고 있는 정서를 한층 강력하게, 보다 절실하게 드러내 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아아, 오오, 어머니, 아이구, 어즈버’ 등과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는 방식**
- ② ‘(임)아, (그대)여, (이름)이여, (임)이시여’ 등과 같은 **호격조사를 사용하는 방식**
- ③ ‘-아라 / -어라, -구나, -나가’ 등과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놀라움, 슬픔, 기쁨 따위의 감정을 증폭하여 표현하는 방식**

### \* 선지의 속살

- ❶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 수능)
- ❷ (가)와 (나)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009년도 9월 평가원)

1. 영탄적 표현은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활용하여 기쁨, 슬픔,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므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2. 예를 들어 <어부단가>의 5연 종장을 보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체세현이 없으랴’와 같이 설의적 영탄을 활용한 방식이 나타난다. 화자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조정의 현실과 거리를 두는 문제와 관한 복잡한 자신의 심정과 생각을 작품 끝부분에 와서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영탄의 어조로 시상(화자의 정서와 중심 생각)을 집약하고 있다는 진술이 성립된다.

## 6. 반복법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지독한 고독을 불러들인 사람들이다.

-Boas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나 문장 등을 두 번 이상 되풀이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꽃 한 송이 피어 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도 없고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 신석정, <슬픈 구도> 중에서

\* '지구도 없다' 라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과 고독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 선지의 속살

❶ (나)와 (다) 모두, 같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2007년도 10월 교육청)

1. 반복은 시어나 시구가 두 번 이상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반복은 내용면으로 볼 때 주제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복이 등장하는 작품에서의 선지에서는 의미나 정서를 '강화한다', '심화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